

# 베트남 재외동포의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최근 우리정부는 재외동포를 소중한 민족자산으로 여기고, 모국과의 연대강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존의 재외동포 정책과 연구 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되어 온 영유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는 주로 동북아와 동남아, 북남미지역에 다수 거주하며, 베트남의 재외동포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비하여 한국인 아버지와 현지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 상당수에 달하는 특징이 있다. 한배가정의 영유아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양질의 교육과 보육에의 접근성이 낮아 생애초기부터 출발점 불평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베트남 거주 재외동포 영유아 가정의 유형(즉, 거주한국가정 및 한배가정)에 따른 양육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I. 서론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잠재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sup>1)</sup> 활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모국과의 연대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확대, 방문취업제도 정비,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통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운영

할 수 있게 되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러한 맥락에서 재외동포를 하나의 소중한 민족자산으로 여기고, 재외동포 가정의 영유아를 향후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관련 연구와 정책은 주로 재외동포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재외동포 영유아에 대한 기본 현황 및 육아 실태에 대한 정보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약 726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며,

\* 본 원고는 2011년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인 '재외동포 영유아가정의 양육가치관 및 실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됨.

1)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의미하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분류할 수 있음. 즉, 일시체류자, 현지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민 2세, 3세 등을 포함함.

재외동포의 규모 측면에서 세계 4위이다. 국가 별로 중국(약 270만명), 미국(약 217만명), 일본(약 90만명), 독립국가연합(약 53만명)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는 여타의 재외동포 거주국가들에 비하여 유일하게 영주권자가 거의 없으며, 약 8만여명의 재외동포가 모두 일반 체류자인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 15개국에 설립된 총 30개 한국학교 가운데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에 각 1개교씩 설립되어 있으며, 총 1,454명의 학생이 취학하고 있다. 병설유치원은 호치민 한국학교에만 설립되어 있으며, 31명이 등록되어 있다.<sup>2)</sup>

베트남 재외동포는 단기체류하는 주재원의 가정이 대다수이나, 최근 한국인 아버지와 현지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또한 상당수에 이르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은 전통적으로 행정 및 교육도시인 베트남 북부의 하노이와 농촌 지역인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에 다수 거주하며,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다(호치민의 한베가정<sup>3)</sup>은 3천여 가구 이상에 이르며, 하노이의 한베가정보다 경제적, 교육적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한베가정의 영유아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베트남 정부가 운영하는 현지 유치원을 이용함으로써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하여 한국인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등, 부모-자녀 관계 형성 및 한글 습득과 정체성 교육의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에서는 베트남 거주 재외동포 영유아 가정의 유형(즉, 거주한국 가정 및 한베가정)에 따른 양육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베트남의 취학 전 교육과 보육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로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난을 해소하지 못한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모이(개방개혁)’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사회·경제 분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으로 배급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의료·교육은 국민 개인의 책임이 된 것이다. 또한 전쟁 후 인구가 대폭 증가하자 취학 전 기관이 매우 부족하게 되었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데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베트남은 1990년부터 지역사회 투자를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의 사회화’와 ‘시설의 다양화’ 정책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민립, 사립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 정책은 취학 전 기관의 부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교육비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베트남은 공업화, 현대화에 따른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취학 전 기관이 유아를 맡기는 단순 탁아가 아니라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다.

2) 재외동포재단(2011). 재외동포 현황. 재외동포재단.  
3)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의미하며, 대부분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로 이루어짐.

## 집 중 조 명

베트남의 육아지원기관은 공립, 민립, 사립으로 구분되며, 광범위하게 민립은 사립에 포함된다(유치원, 어린이집은 단순히 대상의 연령에 따른 구분이다). 기관 설립은 시나 현의 인민위원장 승인이 있어야 하며, 공립기관은 가장 상위 행정 기관인 교육청장의 지시를 받으며, 민립은 인민위원장, 사립은 인민위원회 산하의 교육실장이 관리한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여건만 허락한다면 학비가 저렴한 공립보다는 교육의 질이 높은 고급 사립에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추세이다. 최근에 수도 하노이시와 경제 제1의 도시인 호치민시에서는 시설의 현대화와 컴퓨터교육과 영어 교육 등을 실시하며 월 \$200이상의 수업료를 받는 기관도 다수 생겨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소득층에서는 월 \$700~\$1,000의 국제 유치원을 보내는 가정도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육아지원기관으로 유아원(18개월부터 35개월 이전, 즉, 만 3세 미만의 영아 대상)과 유치원(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대상)이 있다. 베트남의 육아지원기관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12,357개 기관으로, 공립이 약 65%, 사립이 약 35%를 차지한다. 최근 대형 공립유치

원이 2~3개로 분리되면서 학급이 증원되는 등 시설 및 투자를 증대하여 부모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는 291만 명이며, 학급당 평균 아동 수는 27.3명이다.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20.1명이다.

베트남에서는 유아원, 유치원 모두 종일반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1998년 유아교육개정법 이후, 부모를 위한 지원 및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확대를 위해서이다.<sup>4)</sup> 경제적으로 유아를 탁아소나 유아원에 보낼 수 있는 부모의 경우에도 친인척이나 보모를 고용하여 집에서 양육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탁아소나 유아원의 교육의 질이 많이 낙후하여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세 미만 전체 영아의 약 87%는 가정에서 양육되며 주로 조부모가 돌본다.<sup>5)</sup>

베트남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 부족으로,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은 공립 3~5세반의 경우, 40~60명이며 3세 미만 영아반도 평균 20명 이상이다. 따라서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성반 또는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약 2,400여명의

〈표 1〉 베트남 연도별 육아지원기관수, 아동 수, 교사당 아동 수

구분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육아지원기관 수	9,715	10,453	10,927	11,509	11,696	12,190	12,357
아동 수	214만	233만	242만	252만	259만	277만	291만
학급당 평균 아동수	24.5	25.0	25.8	25.9	26.0	26.7	27.3
교사 1인당 아동수	20.7	20.6	20.7	20.5	19.9	20.1	20.1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0), 베트남 교육실태.

4) 유성상·Bihn, N.K.(2007). 베트남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5) UNESCO(2010).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Regional Report: Asia and the Pacific, UNESCO, Hong Kong.

비정규 교사가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소수민족을 위한 취학 전 교육은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 중의 중요한 사항으로 채택되어, 베트남 언어 뿐 아니라 소수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수민족을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다.

### 3.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 가정의 양육 실태 및 요구

#### 가. 조사대상의 특성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가정의 양육실태와 관련 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거주한국가정<sup>6)</sup> 263명, 한베 가정 142명, 현지 베트남가정<sup>7)</sup>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 가정당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의 함께 설문에 참여하였다. 하노이보다는 호치민에 재외동포 거주자가 더 많아 거주한국가정은 하노이에서 104명, 호치민에서 159명, 한베가정은 하노이에서 68명, 호치민에서 74명이 참여하였다<sup>8)</sup>.

연령별로 30~40대가 가장 많으며 20대의 부모는 거주한국가정에는

별로 없지만 한베가정과 현지가정의 20% 내외를 차지하였다. 국적의 경우, 한베가정의 어머니가 한국 국적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여전히 베트남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거주한국가정 부모는 다른 가정보다 학력 및 가구 소득수준이 높으며, 초혼 비율이 높다. 한베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많은 경향이 있으며, 거주한국가정에 비해서 가구 소득수준이 낮고 16.4%가 재혼가정이다(표 2 참조).

〈표 2〉 베트남 재외동포 가정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거주한국가정	한베가정	현지가정	
전체, 계(수)	100.0(263)	100.0(142)	100.0(120)	
나이	29세 이하	1.2	16.0	23.7
	30대	50.0	42.7	63.6
	40대	39.8	26.7	11.0
	50대	8.5	13.0	1.7
	60대 이상	0.4	1.5	-
국적	한국	100.0	50.0	-
	베트남	-	47.8	100.0
현지 거주 기간	1~2년	13.5	2.5	-
	3~5년	47.4	11.4	-
	6~9년	21.5	24.1	-
	10년 이상	17.5	62.0	100.0
학력	고졸 이하	11.3	32.6	26.5
	대학교 중퇴	3.1	10.9	21.4
	대졸 이상	85.6	56.5	52.1
월평균 가구 소득	\$500~\$1000 미만	2.4	10.6	67.5
	\$1000~\$1500 미만	6.5	15.9	8.4
	\$1500~\$2000 미만	14.2	11.5	12.0
	\$2000~\$3000 미만	17.5	31.0	6.0
	\$3000~\$5000 미만	35.8	16.8	3.6
	\$5000 이상	23.6	14.2	2.4
결혼 상태	초혼	95.7	81.3	93.0
	재혼	2.3	16.4	1.7
	이혼/별거/미혼	1.9	2.2	5.2

6) 베트남에 거주하는 양쪽 부모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며, 직장으로 인하여 3년 내외로 단기 체류하는 집단과 실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한 장기 체류집단을 모두 포함함.

7) 현지 베트남가정을 포함한 이유는 재외동포 가정 부모의 영유아 양육 가치관과 실태를 비교하여 결과 해석의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본고에서는 현지가정과 비교보다는 거주한국가정과 한베가정의 양육실태 파악 및 비교에 초점을 둠.

8) 베트남 현지 재외동포의 특성상 5년 이상의 장기 체류보다는 단기체류자가 많아 부득이하게 3년 미만으로 거주한 재외동포가 포함된 경우가 있음.

## 나.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가정의 양육 실태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실태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과 성장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영향력, 아버지의 육아참여, 자녀의 언어 사용 및 민족정체성, 자녀 양육시 느끼는 어려움, 육아지원기관 이용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1) 육아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

〈표 3〉을 보면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한베가정에 비하여 만3세 미만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유난히 강하며(거주한국가정

82.6%, 한베가정 79.9%), 아울러 자녀 성장에 어머니의 영향력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음(거주한국가정 90.9%, 한베가정 75.6%)을 알 수 있다( $p < .001$ ). 특이한 점은 한베가정은 물론, 거주한국가정에서도 재외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버지의 영향력에 비중을 두는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이 조사되었다( $p < .05$ ).

### 2) 아버지의 육아참여도

재외동포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육아참여는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보다 적극적이며, 한베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거주기간이 길수록 아버지의 육아참여도가 높게 조사되었다(표 4 참조).

〈표 3〉 육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단위: %(명)

구분	모)부	모<부	계(수)	$\chi^2(df)$
거주한국가정	90.9	9.1	100.0(254)	22.16(4)***
한베가정	75.6	24.4	100.0(127)	
현지가정	74.5	25.5	100.0(110)	

### 3) 자녀의 언어 사용 및 민족 정체성

거주한국가정 자녀는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베가정에서 현지어

〈표 4〉 한국생활과 비교 및 거주기간별 아버지 육아참여도

단위: %(명)

구분	거의 비슷	더 많이 참여	더 적게 참여	거주경험 없음	계(수)	$\chi^2(df)$	
재외동포						138.48(6)***	
거주한국가정	39.4	27.4	16.6	16.6	100.0(241)		
가정유형						267.64(12)***	
한베가정	20.0	29.6	4.8	45.6	100.0(125)		
체류기간	1-2년 이하	42.3	34.6	15.4	7.7		100.0( 52)
	3-5년 이하	44.9	30.1	16.2	8.8		100.0(136)
	6-9년 이하	22.9	28.9	12.0	36.1		100.0( 83)
	10년 이상	10.0	10.4	2.4	77.2	100.0(412)	

\* $p < .001$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자녀는 52.7%로, 과반 수가 넘어 한국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거주한국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현지어에 능숙하지 못하며, 전혀 못하는 자녀들이 베트남에서 47.1%로 나타났다. 거주한국가정 부모는 자녀의 현지어 능력 부족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며 과반수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표5 참조).

거주한국가정의 자녀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 사용 빈도가 낮아지면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베가정에서는 한국학교 및 한인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한베가정 부모가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대하여 염려하는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약간 염려 39.7%, 매우 염려 23.1%). 한편, 양쪽 부모가 한국인인 거주한국가정 부모의 9.4%가 자녀의 한국어 사용에 대해 매우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경우,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이 있거나 현지 기관을 이용할 경우, 현지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5〉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민족 정체성

구분	한국인	현지인	이중 정체성	자녀 선택준중	계(수)	$\chi^2(df)$
거주한국가정	95.2	0.4	2.8	1.6	100.0(252)	215.68(6)***
한베가정	38.5	3.7	50.4	7.4	100.0(135)	

\*\*\* p < .001

자녀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베가정의 경우 부모 의견의 차이가 확연하였다. 즉, 아버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원하는 반면, 현지 출신 어머니는 출신국의 정체성 또는 한국과 현지인의 이중정체성(50.4%)을 원하거나 혹은 자녀의 선택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 < .001). 이는 거주 기간이 길수록 이중 정체성이나 자녀의 선택이라고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1~2년 이하 거주한 경우 이중정체성 선호 및 자녀선택 준중이 각각 약 5% 수준이나, 10년 이상 거주한 부모는 각각 52.8%, 84.2%임).

#### 4) 자녀 양육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양육비용, 육아 정보 선택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거주한국가정은 한베가정의 2배, 현지 베트남의 가정의 3배 정도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조). 이는 부모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낄수록 자녀가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의견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더 조바심을 내거나 염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육아정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거주한국가정의 67.8%가 혼란스럽다고 느꼈으며, 한베가정 45.6%, 현지 베트남가정 33.6%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한편, 거주한국가정 91.1%가 문화 체험활동 할 곳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한베가정은 57.8%로 조사

〈표 6〉 자녀양육 시 느끼는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F(집단별)
양육비용 부담	거주한국가정	6.7	16.1	47.8	29.4	100,0(255)	58.57***
	한베가정	15.6	45.2	16.7	12.6	100,0(135)	
	현지가정	22.4	56.9	14.7	6.0	100,0(116)	
육아정보 선택혼란	거주한국가정	4.7	27.5	55.3	12.5	100,0(255)	18.91***
	한베가정	11.0	43.4	35.3	10.3	100,0(136)	
	현지가정	18.5	47.9	24.4	9.2	100,0(119)	

\*\*\* p < .001

되어 거주한국가정 부모의 불만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p<.001). 즉,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체험시설이 부족 등의 현지 여건으로 해외에 거주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5) 자녀의 한글학교 이용 및 한국문화 활동 참여

또한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가정의 한글학교<sup>9)</sup> 이용 및 한국문화 활동 참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한 거주한국가정 및 한베가정의 약 70%가 한글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학교를 이용하는 가정에 관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현지 거주기간과 자녀 민족 정체성 선호도는 한글학교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거주기간이 한글학교 참여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조정 R<sup>2</sup>= 0.42)

자녀가 한글학교 이외에 단체나 종교 단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거주한국가정 87.9%, 한베가정 93.5%가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한글학교 이외의 한국문화활동 참여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민족 정체성 선호도 및 한글학교 참여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조정 R<sup>2</sup>= 0.67). 즉, 한글학교에 참여하는 자녀일수록 한국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다. 한글학교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지가 한국문화 활동 참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 6) 육아지원기관 이용

설문에 응답한 거주한국가정의 80.1%, 한베가정의 88.6%가 자녀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가 다니는 육아지원

9) 재외동포 교육기관으로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가 있으며, 베트남의 한글학교는 비영리 민간에 의해 주로 주말학교로 운영됨(예: 사이공 한글 학교에서는 접근성 및 비용문제로 한국학교병설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한베가정 유아들이 한글교육을 받음). 한글학교는 일부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서 의해서도 운영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모국어해교육의 기능을 수행함.

〈표 7〉 자녀가 다니는 육아시설 형태

구분	현지 기관	단위: %			계(수)
		한국학교병설 유치원	사립 한인 유치원	국제학교 유치원	
거주한국가정	10.4	7.4	68.1	14.1	100.0(135)
한베가정	29.0	12.9	58.1	-	100.0(31)

기관의 종류는 거주한국가정 (68.1%)과 한베가정 (58.1%) 모두 사립 한인 유치원을 가장 많이 보내며, 현지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각각 10.4%(거주한국가정)와 29.0%(한베가정)로 한베가정의 경우는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이다(표 7 참조).

자녀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한베가정의 87.9%는 ‘자녀의 인지 발달을 위해’, 거주한국가정의 70.1%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라고 응답했다. 특히 한베가정의 경우 ‘자녀의 인지 발달을 위해’ 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41.9%),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25.8%), 거주한국가정은 자녀의 인지발달을 위해(17.9%),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6.7%) 등도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는 주요 이유가 교육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자녀양육이 힘들어서(3.0%), 본인의 직장 때문(2.2%)에, 한베가정의 경우 본인의

직장 때문(12.9%) 등으로 응답해 자녀의 발달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베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50%),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50.0%)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아직 어려서 적응하지 못할까봐(29.2%), 비용 부담(16.7%)이 가장 큰 이유이며, 한베가정보다 거주한국가정이 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베트남 재외동포가정의 영유아가 기관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시간은 거주한국가정(60.4%), 한베

〈표 8〉 자녀를 육아지원기관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구분	단위: 개, 명					계(수)	$\chi^2(df)$
	본인 취업	양육 어려움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언어발달		
거주한국가정	2.2	3.0	70.1	17.9	6.7	100.0(137)	77.89(4)***
한베가정	12.9	-	41.9	87.9	25.8	100.0(31)	

〈표 9〉 자녀를 육아지원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구분	단위: 개, 명						계(수)	$\chi^2(df)$
	자녀가 너무 어렵	비용 부담	마땅한 기관 없음	돌봐줄 사람 있음	부모양육 가능	기타		
거주한국가정	29.2	16.7	12.5	4.2	8.3	29.2	100.0(24)	6.82(5)*
한베가정	-	-	50.0	-	50.0	-	100.0(2)	



〈표 10〉 자녀 1인당 기관 이용 월평균 비용

단위: %(명)

구분	\$100이하	\$100~199	\$200~299	\$300이상	계(수)	$\chi^2$
거주한국가정	3.7	8.9	45.2	45.2	100.0(135)	2.90(4)
한베가정	6.5	16.1	48.4	29.0	100.0(31)	

〈표 11〉 자녀를 위해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부문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교재 교구 수혜	한국 전통 행사 체험	기타	계(수)
거주한국가정	23.1	35.4	19.7	16.2	5.7	100.0(229)
한베가정	54.5	23.1	10.4	9.0	3.0	100.0(134)

가정(45.2%) 모두 5~6시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8시간(거주한국가정 23.1%, 한베가정 29.0%), 4~5시간(거주한국가정 14.2%, 한베가정 19.4%), 3시간(거주한국가정 1.5%, 한베가정 3.2%)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에 매월 지불하는 비용은 \$200~300(거주한국가정 45.2%, 한베가정 48.4%)이 가장 많았고, \$300이상(거주한국가정 45.2%, 한베가정 29.0%)이 그 다음 순이다. 베트남 현지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부모부담비용수준이다(표 10 참조).

요컨대, 베트남 재외동포 부모의 경제력이 있는 경우, 국제학교유치원과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한인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경제력이 없는 경우는 비용이 저렴한 현지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아예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외동포 가정 영유아의 생애초기 출발의 불평등이 심각함을 말해 준다(표 11 참조).

#### 다.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가정의 요구

자녀를 위해 한국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싶은 분야에 대하여,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한국문화 교육(35.4%)을, 한베가정의 경우 한국어 교육(54.5%)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한국가정과 한베가정의 경우,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와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민족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표 12 참조).

또한 재외동포 영유아 가정의 우리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는 가정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한베가정은 한국학교내 병설유치원 설치 및 학급 증설과 수업료 지원, 부모교육 지원 및 활성화,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가정의 편견 해소 교육과 한국어 교육지원을 요구한 반면, 거주한국가정은 기관 이용시 비용지원 및 이용, 접근이 용이한 도서관 및 문화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2〉 베트남 재외동포가정의 지원 요구

가정 유형	지원 요구
거주한국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학교내 병설유치원 증(신)설</li> <li>-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및 한인유치원 수업료 지원</li> <li>- 이용, 접근이 용이한 도서관 및 문화시설 건립</li> <li>- 유아연령에 적합한 동화책 등 신간 서적 구비</li> </ul>
한베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수업료 지원</li> <li>- 한국학교내 병설유치원 설치 및 학급 증설</li> <li>- 부모교육 지원 및 활성화</li> <li>-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가정의 편견 해소 교육</li> <li>- 한국어 교육 지원</li> </ul>

## 4.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 가정 육아지원 방안

베트남 재외동포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를 토대로 몇 가지 육아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재외국민, 특히 한베가정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국적을 소지한 한베가정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 및 접근성 문제로 한국학교병설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베트남 현지유치원을 이용하므로(약 30%), 출발점 평등 및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저소득 한베가정 영유아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남 재외동포의 육아지원을 위해서는 베트남의 유아교육과 보육 철학과 국가적 목표 등을 포함하여 현지 양육문화와 육아정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베트남은 내전을 겪은 후 사회주의 이념 하에 육아를 전적으로 국가책임으로 간주하였으나, 이후에 가정과 그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고, 교육혁신정책을 통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립기관을

대폭 확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훈련받은 교사 수가 매우 부족한 점, 육아지원기관의 시설환경 및 교구재 등 물리적 여건이 열악한 점 등을 지원정책 수립시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규명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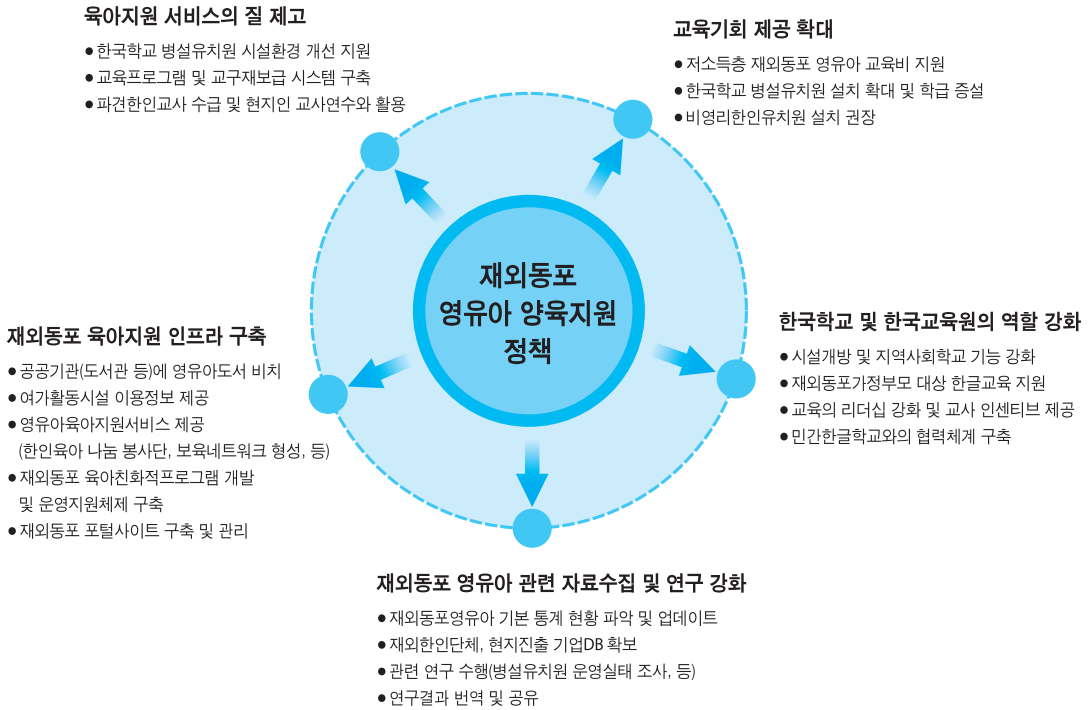
셋째, 현재 베트남에 구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재외 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등) 및 네트워크를

재외동포 육아지원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국내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의 체계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이상의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 육아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으로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의 기회 확대, 육아지원서비스의 질 향상, 재외동포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기존의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역할 강화, 관련 연구의 활성화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16쪽의 [그림 1]과 같다.

### 가.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 교육 기회의 확대

먼저, 저소득 한베가정 및 한국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한다. 한베가정 영유아들이 한국학교병설유치원 및 한인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가정에 한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래 국내거주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국민' 이므로 인도적인 차원은 물론 미래 인적자원투자의 차원에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재외동포 가정 영유아 육아지원 방안

또한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및 비영리 한인 유치원을 증설한다. 병설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며, 주로 주재원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장기 거주한국가정 및 한베 가정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낮아 현실적으로 병설 유치원 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충분한 수요가 있는 거주 지역에 국내대학,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법인) 한인유치원 설치를 장려하고 한국 학교내 병설유치원이 지역 내 거점유치원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재외동포 영유아 이용 육아지원기관의 질 향상

거주한국가정과 한베가정은 육아지원기관의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공간은 충분하나, 실외놀이시설, 교구장 등 제반 시설설비가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 제작된 양질의 최신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공신력있는 국내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교구재 목록을 업데이트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공지 및

신청, 운송을 담당하는 보급시스템을 구축, 활용하도록 한다.

#### 다. 한국학교의 역할 강화

한국학교가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로서 기능하도록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 학교 도서관의 연중 개방, 이중언어 발달 지원, 각종 부모교육 실시 등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취학 전 자녀의 유치원, 보육시설 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 기관생활 적응 지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베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발달 지원을 확대한다.

#### 라. 재외동포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도서관 등)에 영유아용 한국도서를 비치한다. 국내 유아용 도서출판사 및 시립도서관 등과 연계하거나, '책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유아용도서가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은 물론 재외동포 영유아 거주지의 현지도서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외동포 영유아가정을 위한 여가활동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베트남 재외동포 아버지의 경우, 국내생활보다 자녀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시간에 자녀와 함께 할 공원, 박물관, 놀이시설 등이 매우 부족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한인기업인, 한인사회단체 등의 문화시설건립을 위한 기부를 독려하고 동시에 현지 지방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재외동포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 정보를 구하여 안내소책자를 제작, 재외동포 영유아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재외동포 영유아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강화

무엇보다도 한베가정 및 영유아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현지 한인 여성단체, 사회단체, 현지진출 한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적 자원 및 네트워크에 관한 리스트나 DB를 확보하여, 이를 정책개발과 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을 비롯하여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및 한인 사립유치원의 운영실태 조사가 시급하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교 병설유치원과 한인유치원 등의 교육목표, 내용과 방법, 교육활동과 상호작용 등이 어떻게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기여하는지, 특히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